

‘새단장’ 무등경기장, 한국 미래 야구 육성장 되길



데스크칼럼

최동환

문화체육부장
cdstone@jnilbo.com

호남 야구의 메카인 광주 무등경기장이 지난 19일 새단장을 마치고 3년 6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무등야구장은 1965년 광주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체전에 대비해 축구장, 실내수영장 등과 함께 지어졌다. 이후 아마야구 등 각종대회를 치르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의 홈 구장으로 사용됐다. 펜스 길이는 좌우 97m, 가운데 펜스 118m이다. 특히 가운데 펜스의 막음판은 가로 22m 높이 6.9m로 미국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에 있는 그린 몬스터에 비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 프로야구 리그가 벌어지는 경기장 중에 가장 낙후된 야구장으로 꼽히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2003년 7월20일 SK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야구장에 물방개가 외야 잔디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배수시설이 열악해 미꾸라지가 서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고 있을 정도로 운동장 사정이 최악이었다.

이후 2005년 천연잔디가 인조잔디로 교체됐지만 워낙 경기장이 낙후된 데다 인조잔디로 인해 선수 부상이 잦아 선수

들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12년 3월 다시 천연잔디구장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2013년 10월 4일 KIA 타이거즈와 넥센하이오즈(현 키움하이오즈) 경기를 끝으로 프로야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014년부터 프로야구는 신축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치러졌다.

이후 무등경기장은 아마추어와 생활체육 야구대회 장소로 2019년까지 활용되다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로 2020년 4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고, 야구장과 공원이 어우러진 스포츠 테마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무등경기장은 광주시민에게 ‘한과 울분’을 폭발시키는 장소로 사랑받았다. 정치적인 한이 많았던 1980~90년대 광주 시민은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타이거즈 경기를 관전하면서 정치적 설움을 달래고 위안을 삼기도 했다. 경기장에서 ‘김대중’을 연호했고, 응원가로 ‘목포의 눈물’을 부르기도 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군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택시들의 경적시위 집결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무등경기장 정문은 5·18 사적지(제18호)로 지정돼 있고, 이 시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연되고 있는 5·18의 대표 행사가 됐다.

무등경기장은 또 ‘타이거즈 왕조의 전설’이 만들어진 곳이다. 타이거즈는 무등야구장에서 정규시즌 1위 6차례, 한국

시리즈 10번의 우승 기적을 일궈냈다. 그중 1987년 삼성과 맞붙은 한국시리즈에서 삼성 원정 2연승, 홈에서 2연승을 거둬 무등경기장을 찾은 홈팬들에게 우승 트로피를 선사했다. 80년 오월의 아픔을 겪고, 서러운 차별에 시달렸던 광주 시민들에게 무등경기장은 유일하게 승리의 희열을 맛보게 해준 곳이었다.

무등경기장은 프로야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지역 출신 레전드 선수들이 꿈을 키운 곳이기도 하다. 광주일고 출신인 선동열·김기태 전 KIA 감독을 비롯해 염경엽 LG 감독, 이강철 KT 감독, ‘바람의 아들’이종범 LG코치, 이호준 LG코치, 전 메이저리거 서재용·최희섭 KIA코치 등이 무등경기장에서 성장했다.

총 사업비 489억원(시비 352억원·국비 137억원)이 투입된 리모델링을 통해 지난 19일 재개장된 무등경기장은 이제 아마추어 경기장으로 거듭났다. 야구장 주변으로는 조깅트랙과 체육공원, 산책로, 놀이터 등 각종 주민 쉼터가 조성됐으며 1037면의 주차장을 갖췄다.

프로야구선수를 꿈꾸는 많은 광주지역 야구 유망주들이 이날만을 목시 기다렸다. 공사기간 동안 광중에 대체야구장이 없어 화순, 함평, 고창 등 타지역으로 원정 경기를 다니면서 버스 대절비용 등 만만치 않은 경비가 들었기 때문이다. 새단장한 무등경기장이 이제는 선동열, 이종범처럼 야구 꿈나무들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

社說

눈앞 기후위기… 대기오염물질 감축해야

배출량 1년 새 12.2% 증가

전국 대형사업장이 뿜어낸 대기오염물질이 1년새 12.2% 증가했다고 한다.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를 단 대형사업장과 측정 굴뚝 수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지만, 이들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뿐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탄소 산업 육성이란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TMS를 부착한 전국 대형사업장 887곳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총 21만 5205톤으로 전년에 비해 2만3380톤(1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대형사업장 수가 전년 826곳보다 61곳 늘었고, 측정 굴뚝 수도 2524개에서 2988개로 464개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실제 TMS를 단 대형사업장의 굴뚝 1개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72톤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발전과 제철·제강, 시멘트제조, 석유화학 등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 세계 10위의 지구온난화 주범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가까이 감축하지 않으면 인류는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을 떠나서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체내에 침착 되는 등 건강에 해를 끼친다.

일상화된 기후위기는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 우선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이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업장 내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 자발적인 감축 노력도 필요하다. 후대에 물려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관련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마을버스, 광주시 현명한 대책 필요하다

적자에 전면 운행중단 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마을버스는 고지대마을, 외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가까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정류소 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의한다. 교통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높이고, 연계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마을버스다. 다른 교통수단은 가지 않는 길을 오간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뚜렷하지만, 민영제로 운영된다.

조만간 이런 마을버스가 광주에서는 운영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이 마을버스를 운행 할수록 손해만 늘어난다며 전면 운행 중단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5곳으로 12개 노선에 총 87대에 달한다. 실제 운행 버스는 54대에 이른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은 많지 않다. 마을버스는 이용객이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으로 환승할 때 손실 보전금만 받는다. 당연히 마을버스 업체들은 이 지원만으로는 고질적인 마을버스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랫돌을 들어 뒀돌에 박고, 뒀돌을 빼 아랫돌을 막는 형식으로 버텨지만, 지원 없이 더는 못 하겠다.”며 읍소 중이다. 광주시 입장은 방어적이다. 민간사업자로 광주시가 100% 손실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점 등을 들어 적자 보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 돼 마을버스가 운영을 중단할 경우 해당 노선 근처의 시내버스를 우회·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가지 못하는 곳을 들어가는 버스다. 당연히 시민 밀착 교통 서비스다. 마을버스가 멈추면 시민들의 발걸음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광주시는 누구의 세금으로 움직이는가. 바로 시민들의 세금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최우선적인 것부터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가도 오르고 공과금도 올라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에 오고 가는 것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현명한 대책마련을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청소년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지난 27일 낭테르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려던 나델(17)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와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낭테르=AP/뉴시스

서석대



지난 27일 오후 광주 광산구 신창동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들쭉거렸다. 관내 11개 학교 장애·비장애학생, 지도교사 등 38명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행사명은 ‘2023 광주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정보경진과 e스포츠로 나눠 총 4개 종목이 펼쳐졌다. 이번 현장은 응원과 열정,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현장을 방문한 전남일보 사회부 기자 2명까지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성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품암고 3학년 박지호 학생은 악보를 보고 뮤지컬력을

그래, 기적을 만들어 보자꾸나

끼워넣는 코딩체험에서 엄청난 청음률 자랑해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또 e스포츠 현장경기는 특수·일반학급 학생이 2인1조로 팀전을 하는 TFT·모두의 마블 두 종목이 진행됐다. TFT는 지난 2019년 공개된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 오토 체스 장르로, 주어진 기물·특성을 사용해 제한시간 내 상대를 제압하는 게임이다.

TFT 첫 경기에 나선 송광중과 신가중 선수들은 경기석에 앉자마자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관람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학생·지도교사들은 ‘떨지마! 잘할 수 있다! 기적을 만들어보자!’고 힘을 북돋았다.

심판의 안내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자 선수들은 차분히 자신의 기물을 옮겼다. 먼저 차례를 끝낸 한 선수는 제한시간

까지 이동을 완료하지 못한 팀원을 도와 가까스로 순서를 마무리해주기도 했다. 손에 땀을 쥐는 경기 양상에 응원석에서는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라며 승리를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모두의 마블 경기에서는 금호초 학생 4명이 A·B 팀으로 나눠 경합, B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모두의 마블에서 승리한 B팀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이 경기 진행 과정에서 어려워하자 일반학급 학생이 직접 경기 대가장 코드를 입력해주는 등 상호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요즘 광주는 장애인 정책에 있어 e스포츠를 도입,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장애인 선수단 ‘무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

간 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단순 노동직으로 취직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런 이들에게 새로운 장이 열렸다. 비장애인도 힘든 프로 게이머를 향한 도전이다. 아직 광주에서 정식으로 e스포츠 장애인 프로게이머는 탄생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시간 문제일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 역시 e스포츠에 관심을 보이면서 광주는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어쩌면 장애인들의 직업군에 대한 새 길을 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 가만 있으면 발전도 없다. 다같이 뭐라도 해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기적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광주 장애인들의 e스포츠 파이팅을 기원하며 당사들의 현장에 전남일보도 늘 같이 있을 것임을 알려드린다.

노병하논설위원 겸 사회부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www.jnilbo.com m.jnilbo.com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